

##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구매실태 및 만족도

이은주<sup>1</sup> · 박상현<sup>2\*</sup> · 주나미<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sup>2</sup>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 A Study on 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Imported Processed Snacks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un-ju Lee<sup>1</sup>, Sanghyun Park<sup>2\*</sup>, Nami Joo<sup>2</sup>

<sup>1</sup>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for imported processed snack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information for mothers. 81.4% of the respondents often purchased imported processed snacks and the main reason (51.0%) for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snacks was preference of children. A total of 58.0% of the respondents purchased imported processed snacks at a large-scale discount store. 41.9% of the respondents purchased imported dairy products everyday, and 24.8% of them purchased the products once per week. The percentage of not purchasing at all was very high for imported confectionary, jelly and candy, nuts, and drinks. The food additive checking score was very high when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snacks. The graduate school group and unemployed mothers checked significantly more often for food additives ( $p < 0.05$ ). The taste satisfaction score was very high, and employed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aste significantly more than unemployed mothers. Nutrition education using imported processed food labeling should be performed, and quality management before importing processed food should be carried out.

**Key Words:** purchasing behavior, satisfaction, imported processed snacks, preschool children

## 1. 서 론

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신체성장도 활발한 시기로 올바른 영양공급이 중요하다(Kim 등 2008). 신체적 성장 발육이 왕성하고 움직임이 많은 시기이지만 아직까지는 소화 흡수 능력이 미숙하여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함께 식품 섭취 패턴도 형성되어 유아기의 제한된 식품선택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며 다양한 식품과 음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형성된 식습관과 식품에 대한 기호는 평생 식습관의 기초로 자리를 잡게 된다(Hong 1994). 그러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관리하는 일은 개인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KHIDI 2003).

Park & Ahn(2003)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식습관은 어머니의 식습관을 그대로 닮는 것으로 나타나 평소 식사 시간이나 아침식사 결식, 편식, 과식, 외식, 배달음식, 간식 등

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 Kwon(1995)은 주부의 식품에 대한 기호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전한 신체발육은 물론 성격에도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행동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Joo 등 2006). 그러므로 부모는 올바른 식생활관리를 통해 자녀들의 좋은 식습관을 유도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식품의 품질 보존, 효과적인 이용, 안전한 공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료식품을 가공·처리한 것으로 식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외관을 좋게 하여 기호성 및 상품성을 높인다(Han 1998). 가구당 식료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 중 가공식품 지출비는 1970년도에 18.4%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30%, 1993년도에는 36%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Park 2000). 우리나라 아동의 간식 섭취 실태를 보면 과자, 라면, 사탕 등과 같은 인스턴트식품 및 정제 당류의 섭취가 전체 간식의 27%에 달한다(KHIDI 2003).

\*Corresponding author: Sanghyun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471 Fax: 82-2-710-9479 E-mail: bluei7978@hanmail.net

특히 수입 가공식품은 외국의 가공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절차 및 검사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는 수입 전 단계, 통관(검사단계), 유통 중 사후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통관 단계의 검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의 검사제도에 비해 정밀검사의 비율이 높아 검사의 비효율성이 내제된 실정이다(KFDA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구매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취학 아동의 식생활관리자인 어머니가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 어머니 대상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서울 일부 지역 미취학 아동을 둔 주부 23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30부를 배포하여 이 중 210부(회수율 91.3%)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Ahn 1989; Han & Ahn 1998; Kim 2008)를 근거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수입 가공 간식류의 구매 실태, 수입 가공 간식류의 종류별 구매 빈도, 수입 가공 간식류 구매시 정보 확인정도,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가격, 영양정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 확인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점 ~항상 확인한다: 5점). 만족도는 가격, 맛, 품질 등에 대해서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

### 3. 자료의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일반사항, 구매 실태, 구매 빈도는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른 수입 가공 간식류 정보 확인정도 및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 실시 후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사후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Age (years)	20~29	25(11.9)
	30~39	144(68.6)
	40~49	39(18.6)
	≥50	2(1.0)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	1	151(71.9)
	2	59(28.1)
Age of preschool child (years)	<3	36(17.1)
	4	38(18.2)
	5	29(13.9)
	6	49(23.4)
	7	58(27.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153(72.9)
Graduate school		25(11.9)
Employment	Employed	93(44.3)
	Unemployed (housewives)	117(55.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199	10(4.8)
	200~299	78(37.1)
	300~399	71(33.8)
	≥400	51(24.3)
Total	210(100.0)	

하였다. 연령은 30세~39세가 68.6%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자녀수는 1명이 71.9%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72.9%로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는 직업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 주부가 44.3%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7.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3.8%, 400만원 이상 24.3%로 나타났다. 2002년 설문조사된 경주 지역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 Jung 2006)에서는 월 소득이 100~199만원이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0~299만원이 2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월평균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가 실시된 년도와 지역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경기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Baek & Lee(2006)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 2. 수입 가공 간식류의 구매 현황

#### 1) 수입 가공 간식류 구매 실태

수입 가공 간식류의 구매 실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입 가공 간식류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81.4%를 차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수입가공 간식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가공 간식류를 구매하는 이유는 자녀의 선호가 51.0%(98명), 영양가 우수 40.9%(95명), 조리 편리성 7.4%(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일부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Ahn(1989)의 연구, 서울, 경기 지역 거주 주부

<Table 2> The conditions for purchasing of imported processed snacks

The conditions for purchasing		N(%)
Do you often purchase imported processed snacks?	Yes	171(81.4)
	No	39(18.6)
Why do you purchase imported processed snacks?	Because children like them	98(51.0)
	Because their nutrition value are good	95(40.9)
	Because it is easy to cook	15(7.4)
	Others	2(1.7)
Why don't you purchase imported processed snacks? (N=39)	Because it is unhealthy	12(30.8)
	Because I can't trust their quality	16(41.0)
	Because it is expensive	6(15.4)
	Others	5(12.8)
Where do you purchase imported processed snacks?	A large scale discount store	122(58.0)
	Department store	63(30.0)
	Internet shopping	25(12.0)
Monthly expenditure of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snacks (won)	<30,000	88(41.9)
	40,000~59,999	55(26.2)
	60,000~79,999	25(11.9)
	80,000~99,999	21(10.0)
	≥100,000	21(10.0)
Total		210(100.0)

를 대상으로 한 Han & Ahn(1998)의 연구에서 가공 식품 사용 이유로 조리과 보관이 간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공 식품 사용 이유로 영양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가장 낮아(Han & Ahn 1998)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입 가공 간식류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는 39명을 대상으로 수입 가공 간식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41.0%,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 30.8%, 비싸기 때문 15.4%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마트 58.0%(122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백화점 30.0%(63명), 인터넷 쇼핑 12.0%(25명) 순이었다. 수입 가공 간식류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마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4-7세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식섭취에 대해 조사한 Joo 등(2006)의 연구,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한 Ahn & Kang(2006), 미취학 아동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 구매행동에 대한 Kim(2008)의 연구와 같았다. 수입 가공 간식류의 구매비용은 월 3만원 미만이 41.9%(88명)로 가장 높았다.

2) 수입 가공 간식류 종류별 구매 빈도

수입 가공 간식류 종류별 구매 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제품은 매일 구입한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고 1주일에 한번 24.8%, 한 달에 한번 16.2%, 이용하지 않음 8.6%, 2주일에 한번 8.5% 순으로 나타나 구매 빈도가 다른 종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자류는 이용하지 않음 25.7%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한번 23.3%, 2주일에 한번 21.0%, 1주일에 한번 15.7%, 매일 14.3%로 나타나 구매 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젤리 및 사탕류는 이용하지 않음 5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한 달에 한번 23.8%였으며 매일이 4.8%로 가장 낮아 구매 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캔과일 및 건과일은 한 달에 한번 44.3%로 다른 종류보다 한 달에 한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매일은 6.2%로 나타났다.

견과류와 음료는 이용하지 않음이 각각 45.2%, 41.0%로 나타났다.

햄 및 소시지는 한 달에 한번이 38.1%로 가장 높았고 이용하지 않음 25.2%, 2주일에 한번 17.6%, 1주일에 한번 14.8%, 매일 4.3% 순으로 나타났다.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은 유제품(41.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4-6세의 미취학 아동의 간식으로 우유, 음료, 비스킷이나 스낵류가 자주 섭취되고 있었다는 Lee 등(2003)의 연구결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공식품 중 우유, 치즈 등의 유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 Baek & Lee(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수입 가공 간식류의 정보 확인정도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수입 가공 간식류의 정보 확인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의 정보 확인정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점, 항상

<Table 3> The frequency of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snacks

(N=210)

Imported processed snacks	Everyday	Once a week	Once every two weeks	Once a month	Not at all
Dairy products	88(41.9)	52(24.8)	18( 8.5)	34(16.2)	18( 8.6)
Confectionary	30(14.3)	33(15.7)	44(21.0)	49(23.3)	54(25.7)
Jelly and candy	10( 4.8)	20( 9.5)	21(10.0)	50(23.8)	109(51.9)
Canned fruit and dried fruit	13( 6.2)	19( 9.1)	24(11.4)	93(44.3)	61(29.0)
Nuts	17( 8.2)	30(14.3)	19( 9.0)	49(23.3)	95(45.2)
Drinks	23(11.0)	32(15.2)	20( 9.5)	49(23.3)	86(41.0)
Ham and sausage	9( 4.3)	31(14.8)	37(17.6)	80(38.1)	53(25.2)

<Table 4> Checking items when purchasing imported processed snacks by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Mothers' educational level			F value	Mothers' employment			Total
	High school (N=32)	College or university (N=153)	Graduate school (N=25)		Employed (N=117)	Unemployed (Housewives) (N=93)	t value	
Price	4.31±3.76 <sup>b</sup>	3.27±0.83 <sup>a</sup>	3.52±0.82 <sup>a</sup>	5.292**	3.55±2.35	3.39±0.82	0.442	3.46±1.68
Nutritional information	3.44±1.05	3.31±0.92	3.48±0.96	0.531	3.23±0.95	3.44±0.93	2.813	3.35±0.94
Expiry date and manufactured date	3.63±1.10	3.29±1.24	3.56±0.96	1.521	3.34±1.44	3.39±0.96	0.087	3.37±1.19
Packaging materials	3.44±0.98 <sup>a</sup>	3.11±0.87 <sup>a</sup>	3.68±0.30 <sup>b</sup>	3.268*	3.15±0.94	3.29±1.31	0.755	3.23±1.16
Brand	2.88±0.49	2.89±0.58	3.08±0.64	1.255	2.85±0.61	2.96±0.55	1.824	2.91±0.58
Country of origin	3.47±1.05	3.27±0.95	3.68±1.03	2.115	3.28±1.04	3.41±0.94	0.916	3.35±0.98
Artificial additives	4.25±1.30 <sup>a</sup>	3.86±1.23 <sup>a</sup>	4.40±1.12 <sup>b</sup>	2.950*	3.76±1.29	4.16±1.17	5.521*	3.99±1.24
Ingredients	3.22±0.91	3.02±0.76	3.28±0.79	1.738	3.06±0.82	3.09±0.78	0.071	3.08±0.79
Directions	3.10±0.75	3.14±0.87	3.32±0.80	0.563	3.12±0.90	3.19±0.80	0.339	3.16±0.84

\*p<0.05, \*\*p<0.01

<sup>a, 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확인한다 5점으로 평가하고 분석에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확인을 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확인정도 점수가 3.99로 가장 높았고, 가격(3.46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3.37점), 원산지(3.35점), 영양표시(3.35점), 포장재질(3.23점), 유의사항(3.16점), 원료(3.08점) 순이었으며, 브랜드의 확인정도 점수가 2.91로 가장 낮았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가공식품 이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Ahn (1989), Han & Ahn(1998), Joo 등(2005), Kim(200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품첨가물, 원산지 등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Baeck & Lee 2006)에서 식품구입시 신선도 및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2/3가 가공식품에 원료 및 첨가물이 표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3가 식품첨가물에 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상세하며 쉬운 표시(30.2%)를 정부 기관에 가장 건의하고 싶은 내용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식품첨가물에 대해 다른 항목보다 확인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정보 확인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격, 포장재질, 식품첨가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고졸(4.31점)이 대졸(3.27점), 대학원 이상(3.52점) 보다 유의적으로 확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포장재질은 대학원 이상(3.68점)이 고졸(3.44점), 대졸(3.11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확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식품첨가물도 대학원 이상(4.40점)이 고졸(4.25점)이나 대졸(3.86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직업유무에 따른 정보 확인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식품첨가물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 집단이 직업이 있는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가격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확인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확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각 항목의 확인정도 점수가 모두 4점 이하로 각 정보의 확인을 보통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가공 식품에 대한 식품표시나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식품을 구입할 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4.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만족도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만족도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

<Table 5> Satisfaction for imported processed snacks by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Mothers' educational level			F value	Mothers' employment			Total
	High school (N=32)	College or university (N=153)	Graduate school (N=25)		Employed (N=117)	Unemployed (Housewives) (N=93)	t value	
Price	2.91±1.09	2.61±1.32	2.76±0.97	0.780	2.82±1.36	2.49±1.08	3.549	2.68±1.25
Taste	3.56±1.22	3.17±1.27	3.52±1.12	1.888	3.42±1.17	3.09±1.32	3.732*	3.27±1.25
Quality	2.63±0.98	2.42±0.99	2.44±0.82	0.585	2.52±0.97	2.37±0.97	1.262	2.45±0.97
Packaging materials	3.13±1.16	2.76±1.19	3.04±1.10	0.958	2.97±1.14	2.70±1.21	0.823	2.85±1.18
Convenience to cook	3.50±1.34	2.96±1.17	3.20±1.12	1.678	3.16±1.17	2.96±1.25	2.689	3.07±1.21
Safety	2.72±1.11	2.47±1.00	2.64±0.91	2.857	2.64±1.00	2.39±1.00	1.507	2.53±1.01
Country of origin	3.16±1.17	2.74±1.14	3.04±1.10	0.975	2.93±1.11	2.72±1.18	3.325	2.84±1.15
Overall satisfaction	3.06±1.11	2.74±1.12	2.96±1.06	2.224	2.94±1.09	2.66±1.14	3.407	2.81±1.11

\*p<0.05

다. 각 항목의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가하고 분석에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맛의 만족도 점수(3.27점)가 가장 높았고 조리 편리성(3.07점), 포장재질(2.85점), 원산지(2.84점), 전반적인 만족도(2.81점), 가격(2.68점), 안전성(2.5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의 만족도 점수(2.45점)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만족도는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고졸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각 항목별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맛에 대해 직업을 가진 집단(3.42점)이 직업을 가지지 않은 집단(3.09점)보다 유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p<0.05).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을 가진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맛, 조리 편리성 이외에는 만족도 점수가 모두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수입 가공 간식류의 포장재질, 원산지, 품질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입 가공 간식류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이라기보다는 편리한 기호식품 정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구매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취학 아동의 식생활관리자인 어머니가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 어머니 대상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 일부 지역 미취학 아동을 둔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가장 많았고, 미취학 자녀수는 1명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는 직업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 주부가 44.3%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

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2. 수입 가공 간식류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81.4%를 차지했고 수입 가공 간식류를 구매하는 이유는 자녀의 선호, 영양가 우수, 조리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는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나타났다.

3. 수입 가공 간식류 종류별 구매 빈도를 살펴본 결과, 유제품은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과자류, 젤리 및 사탕류, 건과류, 음료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캔과일 및 건과일, 햄 및 소시지는 한 달에 1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 수입 가공 간식류의 정보 확인정도는 식품첨가물의 확인정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가격,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표시, 포장재질, 유의사항, 원료,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더 확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전업주부가 직업여성보다 더 확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p<0.05).

5. 수입 가공 간식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맛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조리 편리성, 포장재질, 원산지, 전반적인 만족도, 가격, 안전성, 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맛에 대해 직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만족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유아기에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관리자인 어머니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식품첨가물의 확인정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산지, 영양표시, 유의사항, 원료와 같은 항목들의 확인정도 점수는 식품첨가물 확인정도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국내 가공식품 식품표시 교육 뿐만 아니라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표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수입 식품의 표시정보를 적절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맛과 조리 편리성 외의 안전성, 품질 등 다른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가공 식품 수입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입 전 단계 및 검사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수입 가공 식품을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Ahn JH, Kang KU. 2006. Consumption type of housewives about organic and instant food. *Korean J. Food & Nutr.*, 19(1):28-37

Ahn SJ. 1989. A study on images and consumption about instant food of homemakers in Kyung-kido area. *Korean J. SOC. Food Sci.*, 5(2):75-90

Baeck BS, Lee YH. 2006. Consumer's awareness and policies directions on food additives-Focusing on consumer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3):133-150

Choi MJ, Jung YS. 2006. The status of eating habits and nutrition intakes of preschool children in Kyungjoo.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1):3-13

Han MY, Ahn MS. 1998. A study on the purchase action of processed foods and the recognition for food additives of urban housewives. *Korean J. Dietary Culture*, 13(2):119-126

Hong YJ. 1994. The study on health habit forming of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1(1):33-42

Jang HS, Kwon CS. 1995.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food habits, food preferences and nutrient intakes of urban middle-aged women. *Korean J. Dietary Culture*, 10(4):227-233

Joo N, Yoon J, Kim O, Ko Y, Jung H, Choi E. 2005.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food labeling system in Seoul and Geongsangnamdo area. *Korean J. Food Culture*, 20(5):525-531

Joo N, Kim S, Park H, Lee S, Kim M, Jung K. 2006. The effect of snack intake of preschoolers on ADHD. *Korean J. Food Culture*, 21(2):193-201

KFDA (Korean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6. A study for improving food inspection system: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from China.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3.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 nutrition service model for health centers; child health nutrition.

Kim JW, Ha AW, Yoo KS. 2008. Mothers' nutrition knowledge and their preschoolers' obesity and dietary habits. *Korean J. Food Culture*, 23(5):646-654

Kim Y. 2008. Study on preference about processed food and purchasing behavior of mothers having preschool children. Master's degree thesis. Kosin University. pp.10-41

Lee JM, Park HJ, Park SM. 2003. A survey on eat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for development snack. *Korean J. Food Culture*, 18(2):151-159

Park HS, Ahn SH. 2003. Eating habits and social behavior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6(3):298-305

Park JW. 2000.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meal patterns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4-16

2010년 11월 16일 신규논문접수, 2011년 1월 21일 수정논문접수, 2011년 1월 25일 채택